

## 枯木生花說話의 性格

崔 來 沃\*

### 1. 序 論

人間에게는 두 가지 本能이 있다. 그 하나는 個體本能인 바 나 하나가 자기의 生命안에서 편안히, 안전하게 잘 살아보려는 그 當代的 欲望이며, 또 하나는 子孫을 남겨 種族을 維持하려는 累代的 種族本能인 것이다. 어찌 인간만이 이 두 本能이 있겠는가? 모든 生物體에는 다 해당하는 것이다. 有限한 자기 當代를 연장하려는 것이 자식(후손)을 낳으려는 것인데, 이는 모든 生命을 가진 것에는 그 生命의 마지막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죽음을 극복하려는 本能을 인간답게 昇華, 表現하려는 것에 “사랑”이나 “결혼”이 있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性慾을 통한 子孫남기”를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여기서 다루려는 說話는 “枯木生花”라 이름한 우리나라에 口傳된 이야기이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이 枯木生花란 말은 달리 말하면 “죽은 자식에게서 손자를 얻는다(손자를 본다)”는 “死子得孫”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죽은 나무에서 다시 꽃이 피듯이 다 망한 집에서 實孫이 탄생해서 門運을 일으켜 子孫이 번성하고 榮達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sup>1)</sup>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경사인 것처럼, 絶孫된 줄 알았다가 뜻밖에 得孫한다면 그 아니 기쁘겠는가? 아슬아슬하게 代를 이었다는 이야기——種族本能을 發露한 民間說話에서 우리는 韓國人의 意識을 찾아볼 수 있다.

\* 博士課程 (國文學專攻)

1) 이는 曹喜雄교수의 정의이다(韓國口碑文學會編, 韓國口碑文學選集. p. 48.)

本稿는 枯木生花說話를 통해서 韓國人, 특히 平民의 意識을 살핍과 동시에 祖上崇拜와 性的 象徵 및 靈交形態<sup>2)</sup>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張德順교수는 韓國說話를 分類할 때 이說話를

C-生譚 3出生 2) 多胎兒

로 하였다.<sup>3)</sup>

필자가 採錄한 說話 “A金氏型” 話者는 이야기 마칠 때에

“강원도 어디가면 死子得孫이라고 한 집이 있다고 그러디다.”

라 하고, “B海平趙氏型” 이야기 끝에 話者는

“지금 그 海平趙氏가 죽은 枯木에 핀 꽃이야 枯木生花이야기지”

라 하고, “C玄風郭氏型” 이야기 끝에 話者는

일곱살 먹자 세 늙을 공부시켜 열 세살 때 경주로 과거를 보러갔지. 한림학사가 되어 돌아와 찌들어진 집안을 일으켰지. 왼손은 죽고 그 후손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지. (방점은 필자)

라 하였다. 위 방점은 玄風郭氏네가 그 枯木生花라는 것을 풀이한 것이다.

필자가 說話를 誘導할 때 “枯木生花이야기 하나 해 주시지요. 死子得孫말입니다”라고 말하면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편 話者나 聽者들은 바로 알아 듣는 것이었다. 이처럼 民間에 慣用語句처럼 傳承한 이 “枯木生花”란 말

2) 靈交란 靈魂과 神人間의 結婚 또는 交媾를 의미한다. 이를 달리 鬼交異物交 歡 神交 등으로 달리 쓸 수 있겠으나 이 말이 적절하여 그대로 지어서 쓴다.

3)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대출판부 1970). p. 24.

① 金玉均을 암살한 洪鍾字가 1890年 프랑스에 유학가서 Guimet 박물관에서 동양서적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이야기 “枯木生花”를 번역하였다는 말을 필자는 들은 바 있다.

② 1910년 刊行된 日本人 高橋亨의 “朝鮮の物語集附俚○集”

③ 1907年 李海朝의 新小說에 “枯木花”라는 것이 있어서 枯木生花와 명칭이彷彿하나 全光鑑교수의 論文을 보면 상관이 없음을 알겠다(枯木花에 대하여 —李海朝作品考— 국어국문학 71호 1976.5).

을 채택하여 본고에 쓸 분아니라, 一般說話型으로 命名, 使用하고자 한다. 1890년대와 1910년대의 문헌에도 이 “枯木生花”란 말이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에서 다루려는 說話는 필자가 직접 채록한 4편의 枯木生花이야기와 韓國口碑文學選集에 실린 1편을 합한 5편의 이야기이나(재료편 참조) 분석방법은 話素를 利用하였는데, 話素란 說話의 重要要素로서 六何原則에 해당하는 단어나 속어구절이며 類話間에 비교해보면 變化와 交替가 되는 부분이다.

### 2. 說話의 分析과 話素比較

비교적 길이가 긴 枯木生花 설화를 분석할 때 18개 話素를 찾아 사용하였는데 그 분석표는 아래와 같다.

枯木生花說話 類話話素表

型	a 언제	b 어디	c 어 면	d 누가	e 어쩌때	f 누가와서	g 어쩌와	h 왜모지?	i 어디에	지
A 김 씨		강원도	人心 좋은 진사의	晚 得 아이가	短命으로 죽	증 이	동남은것 人心쓰니	孫위해 죽보넣어	길가에	
B 해평 조씨			人心 좋은 사	10번째 아이가	5살에 죽 어	大 師	동남와서	<장기> 가락지	대로변	
C 현풍 박씨		현풍	세 아들 둔부자	박씨 父	죽 다	風 水	찾아와	三進士 손자얻기	古木下	
D 황간 황씨		황간		黃 씨	//	//	유언 따라	후손위해	귀한 곳	
E 김경승			살림 있는	主 人 (아버지)	//	//	불러서	정승 판사 후손얻기	//	
型	j 장자 죽음	k 둘째 "	l 세째 "	m 세째 출타	n 여자누구	o 어떻게 만나 잉태제기	p 확 인 (信物)	q 찾아와서	r 결 과	
A 김 씨					신관사도 부임길과년한말	실때 젊은 사람검달	말없이 죽보한별	사또내방	손자- 번창	
B 해평 조씨					//	실때 배가 아파 딸나 옷 벗고잠자	가락지	//	雙童이- 번창	
C 현풍 박씨	3日	7日	1년	형수~세 구경 며	부자집 처녀	우연히 만나동침	막연한 주 소	남장하고 시대에	三 胎 한림박사 진	
D 황간 황씨	3日	1년	3년	//	//	//	// (머슴살아)	머리이고 시대에	三 胎 부자번창	
E 김경승	3日	1년	3년		신부맞아	죽기 전 결			三 胎 정승	

## 3. 두가지 型의 性格

이 분석표를 보면 枯木生花 說話는 두 가지 型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型 : 靈交得孫型 = 죽은 아들의 영혼이 사또의 딸과 交婚한 경우

- ① 인심 좋은 進士아들이(귀한 아들인데) 短命하여 죽는다.
- ② 중이 동냥와서 길가에 묻도록 한다.
- ③ 이때 家門表示의 信物을 무덤에 넣는다.
- ④ 부임하는 新官사또 딸과 죽은 아들의 영혼이 交婚한다.
- ⑤ 信物을 증거로하여 進士며느리가 되고 쌍둥이 아들을 낳는다.

(나)型 : 出他得孫型 = 죽을 運命의 아들이 他地에 가서 처녀와 결혼하고 죽는 경우.

- ①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자식을 두고 죽는다.
- ② 風水를 불러 물으니 벼슬로 출세할 후손을 둘 것이나 아들 3형제는 곧 차례로 죽는다고 하는 明堂(나무아래)을 잡아준다.
- ③ 예언대로 아들 두 명이 차례로 죽자 세째아들은 집을 떠난다.
- ④ 우연히 부자집 딸을 만나 혼인하고 거기서 죽는다.
- ⑤ 막연한 주소를 갖고 세째며느리가 찾아와서 三胎兒~세쌍둥이를 낳는다. 과부인 세 며느리는 하나씩 아들을 차지한다.

(가)靈交得孫型과 (나)出他得孫型의 근본적인 차이는 죽음의 選擇意志에 관한 것이다. 前者는 귀한 아들의 죽음은 어쩔 수 없으나 後者는 살아 있는 세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데도 기꺼이 자기 의사로 죽는다는 것이다.

다음 身分面에서 비교해보면 사돈이 되는 두 집안이 同質身分끼리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돈끼리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니 벼슬사돈끼리, 부자사돈끼리가 되는 것이고, 설화 마지막 結果面에서는 두 說話型이 枯木生花 판 면에서 알 수 있듯이 多胎繁昌할 뿐아니라 벼슬살게 되는데 부자사돈끼리의 (나)出他得孫型에서는 더욱 벼슬이 강조된다. 그 벼슬도 三胎星이야기 처럼 三進士가 되거나 정승판사가 되는 등 아주 훌륭하고 높은 벼슬인 것이다. 한편 (나)出他得孫型은 너무나 비참한 자식들의 내리죽음—줄초상이라는 희생—에 대한 相對的인 報償으로 富와 貴, 곧 부자와 벼슬이 강조된 것

이라 보인다. 그리고 이 (나)型은 (가)型보다 처음신분이 낮기때문에 枯木生花라는 소원성취의 身分跳躍의 폭이 넓은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이러하다.

두 說話型의 비교

型	화소	㉠㉡ 죽은 사람	㉢ 증거 제시	㉣ 어떤 여자	㉤ 결과
(가)型	진사벼슬(부자암시)	信 物	사또벼슬의 딸	자손 번창	
(나)型	부 자	出他로 주소알림	부자집 딸	자손 번창 높은 벼슬	

(가), (나)型은 애초부터 “부자(富)”는 同一하다.

사돈끼리 같은 신분이라는 것은 뿌리박혀있는 階級, 門閥에 의한 婚姻階層意識을 나타낸 것이다. 사돈이 다 벼슬산 사람이라 할 때 자손의 벼슬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알 수 있으며, 벼슬살이는 당연히 富者라는 관념에서 結果話素에서 강조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이에 反하여 平民이라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 부자라고 하였으니 그 자손도 당연히 부자가 될 것이지만, 부자 이상의 벼슬이 필요한 것이다. 단 이 婚事는 當代에 해당하므로 身分에 구애받지만 孫子代 이후에는 그들의 소원이 다 성취된다. 그러면 그들의 소원이란 무엇인가?

富(부자), 貴(벼슬), 多男子(손자얻기)인데 富와 貴는 個體本能의 發露이며, 多男子는 種族本能의 代言인 것이다.

韓國人을 포함한 東洋人의 幸福은 무엇인가? 그 價値基準으로 五福을 드는데 書經洪範篇에는 “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 이라하고 民間俗說에는 ①壽 ②富 ③貴 ④多男子 ⑤康寧 또는 健齒를 든다. 本稿에서는 俗說을 따른 셈인데 왜 ①壽는 제거되었을까? 完全한 幸福을 갖출 수 없는 平民은 ①자기의 壽를 희생함으로써 나머지 ②富와 ③貴와 ④多男子를 後孫代에서 얻게 하여 결국 家門의 영광된 代代의 壽를 누리게 한다.

어찌하여 (가)靈交得孫型에는 女子가 들어오고 있고 (나)出他得孫型에는 男子가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소박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가)型 說話

처럼 설사 남자가 죽은 영혼이라 해도, 살았거나 죽었거나간에, 男子와 女子가 만나야 자손을 남게 된다. 오직 여자만이, 산 여자만이 出産할 수 있으며 枯木生花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민간설화에 동물이 여자로 둔갑한 예가 있다. 여우의 아들이라는 姜邯鄲장군설화나, 龍女의 아들이라는 許眉垂(許穆)설화의<sup>6)</sup> 경우에는 女子가 動物界이지만 “일시적으로 사람인 女子로 둔갑할 수 있는 산(生)存在”였기 때문이다.

남자가 죽은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를 찾아야하므로 남자 무덤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오게 된다. 그 고을을 찾아오는 신분중에는 가장 높은 여자는 신관사또의 딸인 것이다.

한편 남자가 아직 죽지 않은 (나)型 경우에는 女子를 찾아서 나서는 것이다. 그리하여 他地에서 만나는 여자는 자기처럼 부자의 딸인 것이다.

자손을 얻을 수 있는 交婚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男子와 女子의 移動에서 찾아본 것이다.

#### 4. 氏族意識의 時間性

(나)出他得孫型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서린 고약한 明堂”이 나온다. 先敗後成의 명당인 것으로 아버지가 죽어서 묻을 장소를 고를 때 그 아들 3형제가 차례로 죽어야하며, 그리하여 그 손자대부터는 富·貴·多男, 大發·大富·大貴한다는 명당을 말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明堂이라는 것은, 明堂에 산소를 쓴다는 것은 爲先인가 爲孫인가? 곧 祖上을 위한 것인가? 後孫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친다. 그것이 爲先과 爲孫이라면 몇 代까지인가?

6) 둘다 筆者가 채록한 것이다. 강감찬장군의 설화는 문헌에도 보인다. 許眉垂의 出生譚은 이러하다. “孫이 귀한 許眉垂아버지가 99女人을 섭렵하고 100번째 본부인을 다시 찾아야 得男한다는 예언을 듣고 그대로 行한 뒤 歸家中에서 우연히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할 때 같이 피하고 있던 女人을 한번 맞이하여 이듬해 약속한 날 아들을 얻었는데 실은 그 여자는 龍女였고 아들은 용왕의 외손자였기에 눈을 바로 뜨면 세상사람이 놀랄까 봐 눈을 내리깔고 살았기에 “眉垂”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물론 죽은 사람이 아버지이므로 그 祖上魂靈을 편안히 모신다는 것은 바로 上代(上代=父代)를 말한 것이겠지<sup>7)</sup> 後孫은 어느 代까지일까?

A. 金氏型은 (나)出他得孫型인데 그 話者의 口述을 引用하겠다.

...풍수가 아들보고 하는 말이 “아, 자리는 좋은데 쓰기만 하면 정승판서가 날 자린데...”

“그래서요?”

“아들 3형제가 다 죽는단 말이야”

“네?”

“아들 3형제가 3년안에 3년상을 다 마치고 죽게 되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쓰려느냐?”고 물었어. 하 큰 일이지. 말상제도 약혼해 놓고, 둘째는 그 이듬해 약혼할 차례인데.

“아들아 동생들 들어보아라 정승판서가 난 명당자리가 있단다 나는 비록 형이라도 너희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이러한 곳이란다...” 형이 사실이야기를 하니 동생들이 하는 말이

“형이 하는 대로 합시다”한 것이 아닌가?

“부모님이 地下에 편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풍수보고 하는 말이

“우리아버지 신체가 고운 곳에 제신다면 쓰겠오”

C. 玄風郭氏型도 같은 (나)型인데 이러하다

풍수가 말하기를 “그 고목의 뿌리를 헤치고 산소를 쓰면 고목생화하리라. 본 삼형제가 죽어도 그 자손에서 삼진사가 나오리라” 첫형과 둘째형이 응낙을 했는데 동네사람들이 말렸단 말야. 동네 사람이 말렸어도 품삯을 주어 그 뿌리를 헤쳤지.

D. 황간 황씨형도 마저 다루겠다

“...있기는 있는데 음 좀 어려운거라”

“어서 말씀하십시오”

“있기는 있는데 長孫이 3兄弟인데 다 죽어...”

“아, 孫을 두고 죽는단 말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종내 그 무덤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7) 오래된 조상이 꿈에 나타나 무덤을 옮겨달라던가(移葬, 遷葬, 遷墓) 손보아 달라던가 하는 경우는 爲先이 父代를 필선 거슬러 올라간 다.

위 설화 인용에서 본 바로는, 明堂자리가 그 무엇이기에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아들 3형제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같은 의견이 되어서 기꺼이 죽음을 自招한단 말인가?

그 이유를 정리하면

- ① 자손이 풀림없이 있고 벼슬산다는 점에서
- ② 부모님이 地下에서 便하게 된다는 점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세 며느리도 장차 과부가 되는 불행이 닥칠 것인데도 극력반대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 순종한다. 현대인에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명당을 쓴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明堂에 관한 다른 설화를 들어보면 그 明堂性格이 드러날 것이다.

① “우물명당”이라하여 아버지 유언대로 屍身에서 목(首)만 떼어 동네우물이 明堂이라하여 담가 두었는데(水中葬), 이 비밀을 안 어머니가 “남(他人)”이기 때문에 發說하여 明堂運이 없어져 發福치 못하였다는 내용이 있다.<sup>8)</sup>

② 친정아버지 산소가 명당인 것을 알고, 딸이 같은 때에 죽은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산소에 썩은 달걀을 묻어 두고(혹은 물을 부어 두어서) 못쓰게 한 후 빼앗았다는 이야기도 몇이 있다.<sup>9)</sup>

처음 ① “우물명당”은 명당시련과 父子間에 소외된 어머니의 背反(우물명당을 사람들에게 폭로한 것)을 말한 것이다. 한 가문의 後孫發福을 위하여 共同우물을 버려놓은 처사는 共과 私를 구분 못하는 것과, 常識을 넘어서, 심지어 어머니까지 “썩, 우물명당이야기는 남이 듣습니다!”라고하여 남으로 치고 비밀을 이야기하는 父子間의 男性中心이란 血統意識이 얼마나 강렬한

8) 전북남원군 남원읍 동충리에 있던 우물이야기~ 話者 同郡 靈峰面東川里 崔 鑽昊(男. 現 65세 筆者의 父親)씨가 내가 어렸을때 들려준 “女子는 남이다” 라는 由來譚의 하나이다.

9) 忠北 永同 深川의 世宗때 名臣이며 音樂家인 난계 박연(蘭溪朴堧)선생 집안 이야기와(1967년 필자 現地 調査가서들본 것). 慶北 安東 河回에 있는 宣朝때 名相 柳成龍墓에 대하여도 같은 이야기가 있다.

가를 의미한다.

비밀을 못지킨 어머니는 남이었기에 폭로하였다기보다는 폭로하였기 때문에 남이 된 것이다. 자기가문과 씨족을 위하여 어떠한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아야 하고, 그 명당비밀도 끝내 지켜야 하며, 여기에 벗어나면 가족이 안 된다. 어머니라도 버림받는 것이다.

②의 이야기는 비록 자기를 낳아 길러준 친정아버지묘사라 하더라도 명당이라면 자기 血統을 이어갈 媿家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남이 된 딸”이야기이다. 자기자식과 후손을 위하는 “爲孫意識”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바라는 富貴多男子를 나의 當代에 達成할 수 없다면 後孫이라도 富貴多男子할 수 있도록 밀거름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枯木生花 說話의 3형제는 다 죽은 것이다. 또한 머느리는 죽음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과부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나의 밑알이 되어(기독교식 표현으로 하면) 죽어진 뒤 훌륭한 후손이 나와서 진정 자기보다 사람답게 산다면 후손자식은 물론 지금 죽은 자신들(그 후손에게는 조상이 된다)에게도 死後榮光이 될 것이다.

요컨대 明堂은 표면적으로는 爲先이지만 실제로는 爲孫을 뜻하며, 후손의 出世가 나의 出世라는 강렬한 血統의 一體感을 말하는 것이다.

유명한 鄭夢周의 時調 丹心歌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름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라하여 來世, 來來世란 무한한 시간을 말하고, 백골이 진토되어 닳이라도 있고 없고——라 하여 산물이 백골이 되어, 닳마저 결국 없어져도 남는 것이 있다고 노래하였다. 무한한 시간을 통하여 모든 形體가 無化되어도 남아 있는 것은 一片丹心 곧 忠誠心인 것이다. 시간을 넘어서도 존재하는 精神的인 觀念的 價値에 우리 한국인은 집착한다. 이와같이 시간을 넘어서, 죽음을 지나서 저 뒤에 있는 자손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지금 바친다는 氏族意識이 한국인에게 있는 것이다.

現在의 나는 過去の 祖上과 未來의 後孫의 中間者的 存在이면서, 시간을 초월한 한몸(一身)인 것이다. 祖上の 榮光이 나의 榮光이며<sup>10)</sup> 後孫의 出世

10) 祖上 먹을 보거나 잘난 조상을 돌먹이는 우리의 日常生活이 그 증거이다. 지금은 생소한 옛날 학문인 讖學의 發達도 그 증거이다.

가 나의 出世라는 궁지는, 또한 지금 변변치 못한 나는 祖上이나 後孫에게 罪가 된다는 뼈저린 責任을 同伴한다. 그러므로 이 說話에 나오는 자식 3형제는 그 罪責感 내지 使命感에서 죽음을 甘受하고, 저항하지 아니한 것이다. 祖上을 위한 마음이 後孫을 위한 마음인데, 이것은 이 說話의 경우 “죽음을 부른 명당자리”에서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명당을 달리 표현한다면, 富貴多男子라는 우리 人間의 慾望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리(場所)라 하겠다. 금방 多男子라는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 多男子란 “性”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5. 性的 象徵性

婚姻이라 할 때 살아있는 男子와 살아있는 女子가 만나는 것인데, 다시 자손을 두는 경우와 안 두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說話에서 男女婚姻이란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다(여기서 動物의 경우는 論하지 않겠음)

4가지 혼인	{	자손 없음	① 죽은 남자~죽은 여자
			② 산 남자~죽은 여자
	{	자손 있음	③ 죽은 남자~산여자
		수 있음	④ 산(나중에 죽음)남자~산여자

①의 예로는 年前 五臺山에서 男女大學生이 십여명이 익사하였을 때 魂끼리 짝지워 주었던 경우, 물에 빠져 죽은 귀신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처녀·총각귀신끼리 짝지워 준 경우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魂配라 하여, 이 혼배예식을 치르고 나면 서로 사돈의 誼를 지킨다. 무당이 굿을 할 때, 서울지방의 경우, 진오귀굿 다음에 혼배굿을 한다.<sup>11)</sup> 혼백끼리 결혼식을 할 때 위패(位牌)와 허수아비를 만들어 新房을 차려준다.<sup>12)</sup> 이렇게 하면 저승못가고 세상을 떠돌며 인간에게 害

11) 金泰坤교수(圓光大, 民俗學·國文學)가 1976. 5. 22일 말함.

12) 韓泰根선생(信一高校 교사)이 慶南 密陽의 古鄕에서 목격한 바 있다고 함. 1976. 5. 24. 필자에게 알려 줌.

만 꺼치는 “몽달귀신”을 면하게 된다고 한다.

②의 경우 科擧보러가던 총각이 길가에 오줌을 누었는데, 그날밤 처녀귀신이 꿈에 나타나 “男子 陽物을 보았으니 나는 결혼한 것인지라 極樂世界에 가게 되었으니 당신에게 감사하며, 科題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당신이 오줌 누는 자리는 나의 冢土葬자리입니다”<sup>13)</sup>

위에서 말한 ①②이야기에는 女子가 죽었기에 子孫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죽은 女子는 婚姻(交婚)함으로써 만족하며 극락에 가게 된 대신, 그 魂配式을 올려준 사람에게 災殃을 주지 아니한다든지, 陽物을 보여준 男子에게 과거급제와 예쁜 女子를 얻게 한다는 행복을 대가로 준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혼인을 통해서 피차 좋게 된 것이다.

이제 ③을 보자. 죽은 남자와 산 여자의 혼인의 예를 문헌에서 들면 三國遺事 卷一 桃花女와 鼻荊郎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죽은 신라왕 眞智王이 生時의 약속대로 나타나 桃花女와 7일간 동거하여 아들 鼻荊郎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③의 측면에서 處容歌의 처용아내와 疫神과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暗示를 받는다.

枯木生花 (가)型 靈交得孫型이 바로 ③에 해당하는데 姓에 관한 것을 引用하였다.

A金氏型은 중(僧)이 와서 죽은아들의 墓자리로 “길가”에 잡아준다.

...신임 사또는 과년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시집을 안 갔습니다. 그 길가 무덤에서 좀 쉬었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또가 부임한지 1년만에 아, 이거 웬일입니까? 해산기가 있습니다. ... 딸을 죽쳐 물으니까 여기 이 고을에 올 때에 단지 四人轎 타고 그 길가에서 쉬는데 웬 젊은 사람이 하나 달려 들더니 겁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말도 없이 주고 간 것이 있는데 그 증거는 죽보한 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B해평 조씨형은 더 자세하게 나타난다.

...그래 가마를 태워서 이사하다가 하필이면 그 처녀가마가 趙進士의 애기 墓위

13) 筆者의 採錄한 것과 孫晉泰교수의 “朝鮮民譚集”이 “冢土葬의 由來”이야기이다.

에 쉬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딸이 배가 아프다는거야. 서로 붙잡고 진정해라, 진정해라, 그러다가 소릇이 잠이 들어, 시간이 갈 시간이 되었는데 이애가 잠만 자는거야. 싹껏 자고 몇 시간이나 되었는지 자고 보니 큰 애기 옷고름에 天子가 락지(環)가 있어서 처녀가 몰래 취해서 가락지를 감추었는데 그 처녀 속옷이 다 젖었어... 그때 속옷이 다 젖고 땀이 나고 잠이 오고 그 가락지가 표시인데...

위에 인용한 A,B型 說話를 정리하면 이리하다.

- ① 중이 잡아준 묘는 길가였다.
- ② 그 무덤(平土葬자리)에서 사또딸이 쉬다가 靈交하는데 그 과정과 상황 줄거리가 산사람의 경우와 꼭 같다.
- ③ 딸은 이를 비밀로 하고 信物(족보, 가락지)을 보존한다(性的 秘密을 지킨다)
- ④ 이 사실이 드러나고 죽은사람 김며느리가 되어 아기를 낳는다.

길가무덤이란 ②處女平土葬과는 정반대가 되는데, 이것 또한 靈交하기 위하여 異性를 부담없이 만나야하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중의 성격은 修道者라기 보다는 神秘的인 中媒者 또는 生産者(직접 자손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힘을 가진 자)의 性格을 가진다.<sup>14)</sup> 달리 보면 인간의 절망인 無子息이란 고통을 덜어주는 慈悲行爲로서 길가무덤을 잡아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靈交狀況은 묘사면에서 퍼 事實的이라고 하였지만, 거의가 正常을 벗어난다. 대낮에 길가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처녀가 접탈을 당했는데도 소리 하나 지르지 않고 비밀로 하며, 그후 信物 받은 것을 보존해 왔다는 것은 자손(세쌍둥이, 나중 출세한 사람들)출생을 더욱 신비하게 만든다. 이것은 氏族神話의 化石이거나와 世俗化(神話가 民譚으로 변한 것)의 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 信物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族譜”란 血統을 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父系社會의 絶對的 象徴이요 보물이니가 父系社會란 男性中心일진대, 이로보면 族譜는 바로 男性性器의 代喩이며 상징인 것이다. 靈交現場에서 넘

14) 너무 비약인 줄 몰라도, 說話에 중자식(불공가서 만든 중의 아들)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부며느리가 중과 통해서 아들 얻는 것을 靈交得孫型 枯木生花 說話로 변모시킨(說話化)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겨주었다는 것이 더욱 그러하나 女性이 남의 족보를 받아서 곱게 보존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그 족보네사람(시가집으로 알고 족보와 호적에 오른사람)됨을 용납한 것이요, 그로인해 一生을 守節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것이다. 過年한 처녀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과년한 처녀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여자이며, 세상물정을 알 수 있는 여자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가락지”는 女性 또는 결혼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說話에 나오는 가락지는 趙進士가 중국에 가서 天子에게서 받은 것으로 趙進士네 家寶였으며, 귀한 외아들이 죽자 血統이 끊긴 것으로 알고 포기하는 마음에서 아들과 함께 묻는 것이므로 男性을 상징하고 있다.

族譜에다가 문안(家門)을 빛낸 사실을 실어달라는 A金氏型의 希望이나, 中國天子를 만나 선물을 받은 그러한 보람을 실현시켜 달라는 B趙氏型의 所願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의 벼슬살이가 원(願, 再言하거나 富貴多男子)이라는 潛在意識의 一面이기도 하나 ④ 산(나중에 죽지만) 남자와 산 여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C玄風郭氏型 이야기에서 풍수가 잡아주는 명당자리 묘사를 보면 이러하다

이 아들들이 선친상을 맞아서 외(墓)를 쓰는데 문제가 많았던 말이야. 두 형은 장가를 갔으나 막내는 결혼을 아직 안했거든 밧자리를 구하는 데 자기집 앞에 큰 산이 있어. 벌써 솟아가지고 몽쳐져서 평퍼짐하게 되었는데 큰 정자와 고목이 있어 풍수가 말하기를 “그 고목의 뿌리를 헤치고 산소를 쓰면 고목생화하리라...”

위 인용에서 주의할 것은 명당터의 묘사이다. 명당은 左靑龍 右白虎, 뒤에는 山(北玄武) 앞에는 물(南朱雀, 병풍처럼 빙 둘러쳐져 바람을 막는 곳인데, 그 아래에 산의 기운이 몽쳐 벗을 수 있게 물이 흐르거나 고일 것) 등 4곳의 한가운데가 산기운이 몽쳐있는 지점인데, 이를 재혈란(裁穴難)이라 한다. 이 재혈란(裁穴難)을 찾아 쓰는 것이다.<sup>15)</sup> 바로 이 裁穴難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이것은 女性性器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風水圖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거기 고목나무와 그 아래에 묘소를 쓰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

15) 白雲鶴 監修, 「家庭寶鑑全書」(서울 光復出版社, 1976) pp. 249~269.

여기 설화의 나무는 “神話의 空間에 서 있는 祭儀的 聖樹才”<sup>16)</sup>라기 보다는 性을 통한 生成的인 나무라 본다.

하늘문까지 들어간 성스러움보다는<sup>17)</sup> 그 나무아래에서 자손을 보기 위해 묘소를 만들어야 하는, 하늘의 도움없이도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現實的인 俗”으로 보아야 한다.

풍수가 잡아준 명당터 덕분에 아들은 죽고, 손자는 즐거움(富·貴多男子) 속에서 자손번창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듯이 명당터는 하나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 새 생명을 만든다는 “復活과 繁殖”이 아니겠는가? 죽었는데 살았다는 곳이 명당터인데, 위의 묘사를 보면 男女性器와 그 性行爲를 상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요컨대 명당(또는 무덤)이란 女性器의 상징이며, 명당에 장례를 지낸다는 것은 復活과 繁殖과 生成이란 점에서 性行爲를 상징하는 것이다.<sup>18)</sup>

出他得孫型인 C玄風郭氏型에서, 큰아들도 죽고 둘째아들도 죽게되자 두 며느리는 돈을 마련하여 세째아들에게 죽기 전에 세상구경을 마음껏하고 돌아와서 죽으라고 하며 내보낸다(出他, 出家), 그래서 집을 떠나 정처없이 다녔던 세째아들은 정말 우연히 부자집밭을 만나, 정식은 아니지만, 결혼한 뒤 거기서 죽고, 배가 불러오른 세째며느리(그 부자집밭)는 죽은 남편집을 찾아온다. 그가 세쌍둥이를 낳으니까 큰며느리가 자기아이라고 첫아이를 차지하고, 둘째며느리가 둘째아이를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객지에서 온 세째며느리가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두 형수가 말했던 세상구경이란 결국 명당 때문에 죽어가는 집을 떠나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명당 쓸 때의 예언받은 운명은 어찌할 수 없었다. 세째아들은 客死한 것이다. 그러나 이 탈출을 통해서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계제(階梯, 機會)는 된 것이

16) 李寬逸, 日月說話研究(國語國文學, 第71號 p.116)

17) Mircea Eliade著 文相熙譯 사아머니즘(世界思想全集 48, 三省出版社 1979) p. 175.

18) 사실 風水思想이 東洋三國에 共通된 것이며, 우리나라 傳來의 葬禮의식이 극히 엄숙하다는 점을 보면 필자의 “性象徵論”은 계속 연구할 문제로 남는다고 본다.

다.

이런 (나)出他得孫型에서는 살아있는 男女끼리의 결혼이야기이므로 象徴的, 隱喩的인 神秘的 靈交대목은 없는 대신, 인간적인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이야기가 나타난다. 그리고 男女의 혼인의식과 제3자의 증인과 양가간의 通婚節次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C玄風郭氏型의 줄거리를 보면 이러하다.

...오두막집에서 부자집딸의 乳母를 만나 자다가 잠자리 내려와 옷벗은 부자딸을 만나 부부가 된 뒤 죽을 팔자라는 이야기를 남자(세째아들)가 하니까, 女子가 부부인연을 말하면서 세상구경을 다 한 뒤 죽을 때 자기에게 오라고 한다. 과연 세째아들이 오니까 대밭에 가 죽도록하여 사람을 사서 묻어 준 뒤 男裝을 하고 신랑집을 찾아온다.

이로보면 人物에 따라 說話의 設定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6. 結 論

枯木生花 說話란 이름은 민간에 전승된 것으로, 그 내용은 죽은 아들이 靈交를 하여 자손을 얻은 靈交得孫型과, 明堂에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죽어야 할 세째아들이 客地에 나가서 子孫을 볼 수 있게된 出他得孫型이란 두 가지가 있다.

필자가 定義한 話素에 따라 이를 分析, 考察한 바는 아래와 같다.

人間의 個體本能에 해당하는 富·貴(부자·벼슬)와 種族本能에 해당하는 多男子(자손두기)가 다 充足된 설화이다.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벼슬아치 경우)은 부족한 다른것(자손번창)만 추구한다. 같은 신분끼리 결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죽음이 따르는 명당을 쓸것을 주저하거나 저항하지 않은것은 조상(과거)과 나(현재)와 후손(미래)는 시간의 제한과 죽음을 초월한 강한 血統意識과 一體感때문이다.

說話에서의 男女婚姻이란 삶과 죽음이 넘나들고 있으며 이 婚姻은 性인 바

幸運과 平和와 繁昌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枯木生花說話는 性的 象徴이 강하게 깔려 있는데, 길가무덤, 언덕의 큰나무, 족보, 가락지, 명당터잡기 등은 性器를 뜻하거나 性行爲를 상징한 것이다.

살아 있는 남녀이야기일 때는 상징성이 적고, 보다 인간적이고도 사실적인 사랑이야기가 많아진다.

이 說話研究는 筆者가 一連作業으로 다루고 있는 韓國說話 研究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口頭發表한 바 있다. 이 說話의 소재는 姓氏(氏族)인데 氏族 始祖 說話에서 훨씬 後代에 내려와서 생긴 中始祖說話인 것이다. 朴赫巨世王이나 金首露王이야기의 경우는 神話인데, 후대에 내려오게 되면 神話性은 사라지고 民間說話(民譚)性格으로 格下된다. 우리가 고찰한 바로는 신화적인 잔재가 보이나니, 異常人의 등장(중이나 풍수)靈交, 信物, 異常出生 그리고 많은 상징대목 등을 들 수 있다.

이 說話型을 우선 5만 제시하였거니와 앞으로 수많은 類話를 採錄한다면 더 새로운 사실을 고찰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 자료 A(靈交得孫型)

##### 강원도 김진사네 枯木生花

아들은 죽었는데 손자가 생겼다면 이상한 이야기지요. 강원도에 있는 말인데 강원도에 어떤 진사가 잘 살았던가 본데 동냥을 잘 주었는데 진사는 집앞에 쌀을 항아리에 묻어두고서 거지가 오면 네마음껏 퍼가라고 하고 중이 와도 퍼가라고 한데, 네 뱃장대로 퍼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중이 와서 동냥달래여 그러니까 진사양반이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니 까 중이 하는 말이 주인이 주지 않은데 내가 주인 안 주는 쌀을 가져갈 수 있오? 그렇게 중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사는 아들이 없다가 늦게서야 아래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이보고 가서 동냥을 주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가서 주는 겁니다. 진사 대신에, 중이 동냥을 받고 아이를 찬찬히 보더니 중이 나가면서 “참 그 아이 생기는 잘 생겼다마는…”하는 것입니다. 좋다마는. 그 “마는”이 안좋다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진사양반 깜짝 놀라서 내 달으며 “여보시오, 스님. 이 소리가 무슨 말씀이요?” 중이 멈칫멈칫하더니 “네 말씀드리지요. 그 命짜가 짜롭다(짧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늦게 나서 기른 자식이 명이 짧다니, 하, 기가 막힐것 아닙니까? 무슨 수라도 써야지요. “스님 어찌하면 뱃(액막이)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르쳐 주시

오.” 명을 늘려하는 것이지요. 중이 하는 말이 “아직 급하지 않으니 내가 또 오리라” 하고 떠났다 이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가서 중이 또 왔습니다. 13년만에 또 다시 중 진사집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진사를 어서 오라는 거여. 그래 진사가 중과 잠시 작별하고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대단히 기분이 나빠하더니 중이 왜 그러냐고 물으려는데 중 있으니 꼭 속리가 안에서 나는 거여. 중이 하는 말이

“안 됐습니다. 아드님이 갔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뺨이 없어서 내가 다시 왔는데, 간 것입니다. 그러. 이왕 그리 된것 어찌할 수 없으니 5일장을 하여 장례지 내시오. 내가 묘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이제 중이 시킨 대로 장례를 지내는데 죽보고 뭐고 다 관속에 넣으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죽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널속에다가. 그러니까 관속에다가 다 넣고 치상 준비를 하니까, 너 이제 죽은 마당이니까 일찍 떠날 바에는 다가지고 가라 이것이지요. 그래 5일이 되는 때에 중이 또 왔습니다. 약속대로 묘를 잡아줍니다. 그 묘자리가 어디냐 하면 그게 길가에라, 생각하면 묘자리치고는 우습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얼마후에 그 고을 사또가 신관사또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고장으로 오는 길에 그 사또는 과년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시집을 안갔습니다. 그 길가 무덤에서 좀 쉬었다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또가 부임한지 1년만에 아 이게 웬일입니까? 해산기가 있습니다. 아낙(부인)에서 걱정이 되거든요. 사또의 딸이 배가 부르다? 사또님께서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는 무슨 곳은 것이나 간음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해서 그래 딸을 죽쳐 물었지요.

여기 이 고을에 올 때가, 그때는 단지 사인교를 타고다닐 때이니까, 사인교를 타고 그 길가에서 쉬고 있는데 웬 젊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달려들더니 겁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말도 없이 주고간 것이 있는데, 그 증거는 죽보한벌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관사또가 고을어르신이니까 사실을 조사해 보았던 것이지요. 이리저리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진사의 죽은아들혼이 겁탈을 했더라 이것입니다. 진사는 그 고을 유적인지라 그 새사또가 진사를 예전에 인사를 가지만 진사가 아이를 잃고 있는데, 사또가 찾아왔다 이것입니다. 진사가 하는 말이, 아참, 내가(話者)하나 있어 먹었구만, 그 중이 묘자리를 잡아 줄 때 주머니를 하나 주면서 一喜一慳가 있을 때 열어보라고 한 것인데, 열어 보니까 내용이 일년만에 이러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또가 진사네 죽보를 보고 진사가 말하는 내력을 듣고서 그 젊은이가 겁탈했다는 것이 진사네 아들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사또의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 이태가 지나고 두이태가 지나고 그 이태(7日)라고 있지 않소? 칠칠은 사십구, 일곱이태가 지나니까 사또가 진사를 오라고 전갈이 와서 갔던가 봅니다. 그래 갔더니 진사가 죽보를 내주면서 “이거 당신네 죽보아니오?” “그래서 보니까 자기네 죽보라 아들

관속에 넣었던 족보다 이것입니다. 그래 아들잃은 진사가 남의 사또네 아들이래 잔치에 갔으니 一悲가 아닙니까? 그러다가 손자를 보니까 오직 절검(절집)했습니까? 一喜지요 강원도 어디가면 死子得孫이라고 한 집안이 있다고 그러디다. 것처럼 중이 똑 떨어져 안것이지요.

(梁奉元(男 69세. 서울 신촌거주) 老人이 1968. 2. 2. 밤 10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노고산동노인회에서 이야기관에서 조사자의 유도없이 口述하다. 젊었을때 결혼후 25세경 全北 全州에서 들었으나 前話者는 기억이 안나며 강원도 어느 성씨 내력이야기 할 때 들었다고 한다.)

### 자료E(出他得孫型)

김정승네 枯木生花

예전 우리나라 풍속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풍수 묘자리를 잘모시는 법이다 이것은 욕심이라할까, 에— 잘산다고할까.

옛날 어떤사람이 살림깨나 있고 산데, 아들은 3형제를 두고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들이 다 효자지. 이제 風水를 두어서 삼각산이고 어디고 못간山도 없이 저 백두산도 가고 다니면서 구산(求山, 산소찾기)을 하는데, 하나를 찾았어 풍수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아 자리는 좋은데 쓰기만하면 정승판사가 날자린데…” “그래서요?”

“아들 三兄弟가 다 죽는단 말이야”

“네?” “아들 三兄弟가 3년안에 3년상을 다 마치고 죽게돼. 그래도 이 자리를 쓰려느냐?”고 물었어. 하, 큰일이지. 만상제도 약혼해 놓고 둘째는 그 이듬해 약혼할 차례인데 동생들이 25살, 끝이(마내가) 열칠팔 된 모양이지.

“아들아 동생들 들어보아라 정승판사가 날 명당자리가 있단다. 나는 비록 형이라도 너희 말을 들어야지 않겠니? 이러이러한 것이란다”

형이 사실 이야기를 하니까 동생들이 하는 말이 “형이 하는 대로 합시다.”한 것이 아닌가?

“父母님이 地下에서 편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야. 만상주는 오늘 장사지내면 삼우(三虞) 지나서 죽고, 둘째는 이듬해 제사지내서 죽고 셋째는 3년상에 죽는다는데 그래도 쓰려느냐?”

“우리 아버지 신체가 고운 곳에 제신다면 쓰겠소”

그말대로 삼우날 큰 상체가 덜컥 죽어, 약혼해 놓고 죽으니 과부가 되어라 이거여. 그전에는 한번 결혼하면 판곳에 (시집)못간다 이거여. 어쨌던 머리를 풀고 집에 들어와야지. 시어머니도 과부고 만머느리도 머리결고 냉수먹고 당시 곡하고 머리푸니 둘째시동생도 갔어. 이제 그 이듬해에 둘째 시동생도 죽고 3년만에 18살짜리가 21살이 되어서 그리저리 말뚱말뚱하니 그냥 독수 없어 잠가류 자어. 신해올 딱 해놓으니 내

일 모레쯤이 제사날이면 3년제사날이면 오늘쯤에 대사(婚姻날)를 했어.

날이 새면 꼭 그대로 가는 거야. 제사날전에 신행(新行)을 했는데 과부 3이 그 막내아들 하나만 보고 있는데 파제날(罷祭日, 제사를 마친날. 3년상날)이지. 그 새신랑이 또 덜컥 죽어. 때과부가 아니냐말이여. 새로 들어온, 그 제사날 들어온 제일막내며느리가 딸이 차서아들 三兄弟를, 三胎를 낳더라란 말이여 아이를 낳니까 막며느리가 첫째아이를 낳으니까 이진 내아이라 하고, 둘째며느리가 둘째아이를 낳으니까 이진 내아이라 하고 세째며느리가 세째아이를 낳으니까 이진 내 아이라고 하고. 그막내가 三代가 나서 차차 가르쳐서 자라나서는 차차 재산도 늘고 해서 三政丞이 되었다고 역사로 이야기를 한데 김정승이 되었다는 것이지 이것은 옛날 풍습으로 따지면 이상한 미신이라 할까. 父母에게 효도하라는 것이지요.

池順實(男 70세, 서울 신촌거주, 노고산동노인회 회장)老人이 1967. 4. 8밤 9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노고산동노인회에서 이야기관에서 계속 들려준 이야기 10개 중의 하나로 조사 자유도 없이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口述하다. 3년전 남산공원에서 이종국씨(65~70세 사이 男 서울 후암동거주)가 공원 이야기관에서 들려준 것이라 한다. 이 이야기는 세계가 出他하여 他地에서 결혼 후 여자가 들어오는 내용(韓國口碑文學選集 p. 47과 필자가 조사한 이 黃潤의 長水黃氏이야기)과 달리 자기집에서 정식으로 혼인하는 것이 특색이다. 그리하여 構成上 사랑의 出他行脚이 없다.